

초당동 유적을 통해 본 중부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중기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middle Neolithic age
of the central east coast area seen through
Chodang-dong Site

구 자 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I. 머리말

II.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인식

III. 초당동 신석기시대 마을

IV.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출토유물 검토

V.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성격

VI. 맺음말

국문 요약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그동안 양양 지경리 유적 외에 뚜렷한 조사 성과가 없었는데, 초당동 유적이 발굴조사 되면서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해졌다. 초당동 신석기 유적은 신석기시대 중기에 형성된 마을유적으로 토기 및 석기 뿐 아니라 집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어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빗살무늬토기를 중심으로 편년 설정과 중기문화가 성립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양양 지경리 유적의 빗살무늬토기 결과로 인해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빗살무늬토기는 중서부지역 구분문제 빗살무늬토기의 영향으로 성립되었으며, 후반에는 남부지역 전통의 구연부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동북지역 계통의 토기들도 소량 출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출토 유물을 분석해 본 결과, 빗살무늬토기의 구연부 문양을 중심으로 보면 단사선문이 주류인 경우와 집선문(능형, 삼각, 제형 등)이 주류인 경우로 구분된다. 초동당 신석기유적에서는 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강릉 하시동, 방동리, 안인리 유적의 경우에는 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또한 야외 화덕시설이 확인된 유적은 횡단선문, 사단선문 등의 빗살무늬토기가 주로 출토되고 있어 초당동의 야외 화덕시설은 신석기시대 중기보다는 후~말기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은 중기에 다수의 집자리와 함께 야외 화덕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초당동 유적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로 판단할 때, 경포호 남쪽의 허균-허난설현 유적 주변이 중심 거주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신석기시대 후~말기에는 제1사구지대 전반에 걸쳐 야외 화덕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였으나, 중기에서처럼 동지역에 서의 정주를 통한 유적 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신석기시대, 중부동해안지역, 초당동유적, 빗살무늬토기, 야외 화덕시설

I . 머리말

초당동 유적이 위치한 강릉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강릉 토성지에서 일본인에 의해 빗살무늬토기편이 발견되어 보고한 것이 최초이다(有光敎一 1938). 이후 각종 지표조사를 통해 초당동, 유천동, 지변동, 교동 유적 등이 알려지게 되었다(강릉대학교박물관 1991 · 1992 · 1995).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활발한 고고학 조사를 통해 점차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다.

특히 초당동의 허균-허난설헌 자료관 건립부지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강릉지역을 비롯한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성격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양양 지경리 유적 외에 뚜렷한 조사 성과가 없었는데, 초당동 유적이 발굴조사 되면서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은 빗살무늬토기(침선문)단계에 형성된 마을유적으로 토기 및 석기 뿐 아니라 집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어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초당동 신석기시대 유구와 출토유물에 대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중부동해안지역에서 초당동 신석기유적이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을 밝히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II .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인식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에 대한 연구는 양양 가평리, 양양 지경리, 강릉 초당동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빗살무늬토기를 중심으로 편년 설정과 중기문화가 성립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임상택(2001 · 2004 · 2006)의 연구가 있는데, 양양 지경리 유적의 발굴조사 이후 중부동해안지역에서 출토되는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는 주로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유사하며, 중서부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의해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가 동해안지역에 유입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중부내륙지역(영서

지역)에서 이른 시기의 신석기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점진적인 문화전파보다는 집단의 이동에 의해 빗살무늬토기문화가 중부동해안지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전단계의 오산리식토기 혹은 용기문토기와 빗살무늬토기가 접촉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빗살무늬토기가 유입된 시기에 중부동해안지역의 선주민은 물러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결국 구분문제 빗살무늬토기문화가 중부동해안지역에 정착된 이후 남해안 전통의 토기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후 남부지역의 토기변천과 같은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송은숙(2002)도 중부동해안지역 빗살무늬토기는 중서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전 단계인 오산리식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단절되어 중서부지역 집단의 이주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민 이주의 배경으로는 중부동해안지역에 발달한 석호 때문으로 보았다. 중부동해안지역의 석호는 기원전 4,000년 전쯤 완성되었고, 이는 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강에 적응된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중부동해안지역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 문화의 특징들이 일시에 중부동해안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은 주민들이 이주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동주(2001)는 양양 지경리 유적을 중심으로 동해안지역의 빗살무늬토기를 검토하면서 지경리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는 이른 시기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중서부지역과 남부지역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어 동해안지역에서 남부지역 빗살무늬토기의 등장이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보다 늦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최종혁(2001)은 지경리 유적을 검토하면서 빗살무늬토기의 특징으로 자돌에 의한 종속문이 없는 반면, 집선문에 의한 것이 많은 점과 동체문양으로 종주어골문이 적고 거의 횡주어골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경리 유적을 지경리 하층문화(6호 집자리 외)와 지경리 상층문화(6호 집자리)로 구분한 후, 하층문화는 삼부위시문 빗살무늬토기가 출토하며, 상층문화는 남부지역의 태선침선문 빗살무늬토기가 출토해 중기의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경리 유적(강릉대학교박물관 2002)의 보고자는 집자리 출토 토기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의 차이를 근거로 4호 집자리군은 I 기로, 6호 집자리는 II 기로 세분하였다. I기는 신석기시대 중기 전반, II기는 신석기시대 중기 후반에 위치시켰다. 각각 중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6호 집자리와

7호 집자리 간의 중복으로 인해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결국 양양 지경리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로 인해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빗살무늬토기는 중서부지역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의 영향으로 성립되었으며 (기원전 3500~3300년), 후반(기원전 3300~3000년)에는 남부지역 전통의 구연부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동북지역 계통의 토기들도 소량 출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중부동해안지역 중기 빗살무늬토기의 양상에 대해서는 양양 지경리 유적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이후 강릉 초당동 유적이 조사·보고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검토가 이루질 수 있게 되었다.

초당동 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6a) 보고자는 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를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의 I 기, 구연부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의 II 기, 퇴화된 침선문과 무문 등의 III 기로 나뉜다고 보았다. 특히 II기에 해당되는 태선침선의 시문기법이 남아 있는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는 수가리 I식토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태선침선의 퇴화양상이 보이긴 하나 지경리 유적 II기 빗살무늬토기보다 많이 남아 있으며 문양이 정연하고 규칙적이어서 좀 더 빠르거나 같은 시기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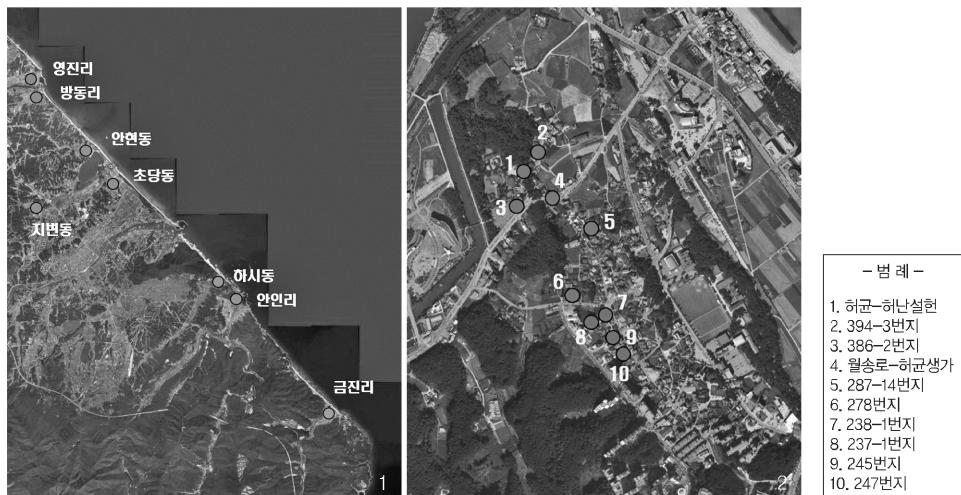
임상택(2009)은 초당동 유적을 크게 단사선문과 집선문을 중심으로 한 I기와 지자문, 사단선문 등을 중심으로 한 II기로 나누었는데, 초당동 I기는 기존의 지경리 II기와 대응시켜 중기 후반으로 위치시켰다. 초당동 유적 보고자의 I기와 II기 유물은 유적에서 조사된 집자리에서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이를 포괄하여 지경리 6호 집자리와 병행하는 단계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초당동 I기의 빗살무늬토기는 세부적으로는 지경리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빗살무늬토기의 시문기법에서 태선침선 기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세침선화한 것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부지역 빗살무늬토기의 특징인 비후구연이 보이지 않는 등 남부지역 태선문 빗살무늬토기와의 차이점도 보이고 있어 수가리 I식보다는 약간 늦은 단계로 판단하였다.¹⁾

이밖에 중부동해안지역 신석기유적을 중심으로 집자리(마을)의 변화과정(구자진 2007) 혹은 석기조합 양상을 통한 생계경제(이정재 2009, 조은하 2014, 윤정국

1) 그러나 그가 근거로 든 태선침선과 비후구연은 남부지역의 토기 요소로 그것이 중부동해안지역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즉 남부지역에서 보이는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중부동해안지역에서도 시기와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임수진 2013).

2016), 토기의 기종조성(공승은 2020)과 석총의 형식변화(최종희 2019)를 통해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의 양상을 검토한 연구도 있다. 또한 지경리와 초당동 유적을 중심으로 중부동해안지역 중기 빗살무늬토기를 세분화한 연구(임수진 2013)와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있다(이수진 2010).



[그림 1] 강릉과 초당동 신석기유적 위치도(1. 강릉지역 유적 2. 초당동 발굴조사 지점)

III . 초당동 신석기시대 마을

여기에서는 강릉 초당동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집자리와 야외 시설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초당동 유적 중 신석기시대 유구가 확인된 지점은 강릉 허균·허난설현 자료관 건립부지 유적(허균·허난설현 유적), 강릉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하수관로 유적), 강릉 초당동 238-1번지 외 2필지 유적(238-1번지 유적), 강릉 초당동 394-3번지 유적(394-3번지 유적), 강릉 초당동 247번지 어린이집 신축부지 내 유적(247번지 유적), 초당동 287-14번지 주택부지 유적(287-14번지 유적), 초당동 245번지 주택부지 유적(245번지 유적), 강릉 초당동 386-2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386-2번지 유적), 강릉 초당동 278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278번지 유적), 월송로~허균생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유적(월송로-허균생가 유적), 강릉 초당동(237-1번지) 창

고 신축부지 내 유적(237-1번지 유적)이 있다.

이밖에 강릉지역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안인리, 하시동, 방동리 66-3번지, 방동리 63-20번지, 방동리 가둔지, 지변동, 금진리 458번지, 금진리 수련원부지, 안현동, 영진리(주문진 공설운동장 부지) 유적 등의 유적도 함께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그림 1참조).

1. 집자리

초당동 유적을 비롯한 강릉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신석기시대 집자리는 허균-허난설헌 유적(4기), 초당동 하수관로 유적(9기?), 초당동 247번지 유적(1기), 초당동 394-3번지 유적(2기), 초당동 287-14번지 유적(2기), 하시동 유적(13~15기), 방동리 유적(3기)에서 총 최대 36기의 집자리가 확인 혹은 발굴조사 되었다. 이중에서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 대략적으로 집자리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집자리는 13기에 불과하다(표 1 참조). 이에 중부동해안지역 중기에 해당하는 양양 지경리, 양양 가평리, 양양 송전리 유적의 집자리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강릉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인데, 이는 중부동해안지역 중기에 해당하는 기존의 양양 지경리와 가평리, 송전리 유적의 집자리 평면형태가 대부분 (장)방형인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그림 2·3 참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강릉지역은 원형, 양양지역은 방형의 평면형태가 선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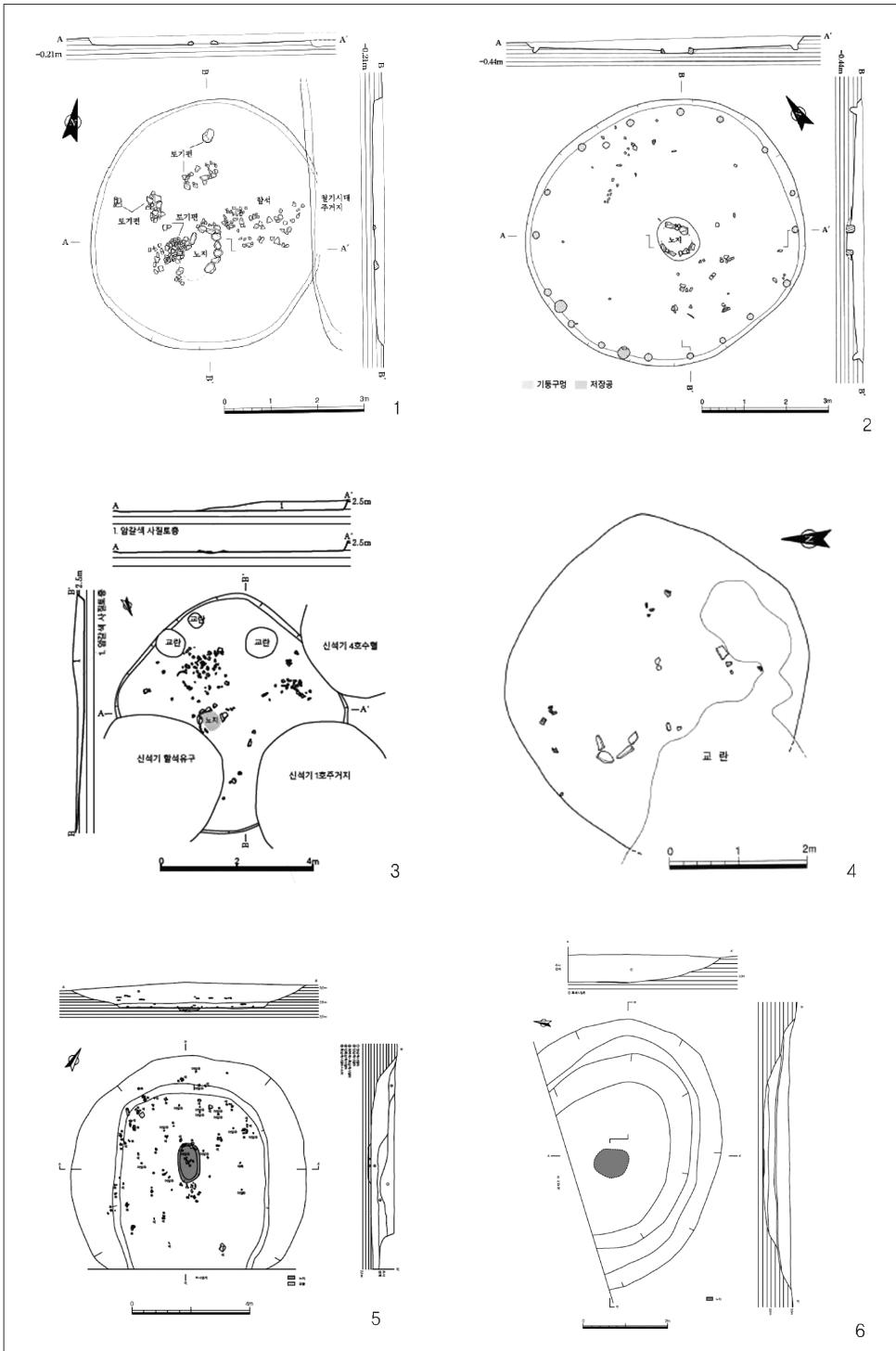
집자리의 규모는 한 변의 길이 혹은 지름이 5~7m 내외가 주류를 이루는데, 동시기의 중부서해안지역 혹은 중부내륙지역의 집자리보다 큰 규모에 해당한다. 초당동 유적에서 확인된 집자리의 화덕시설은 모두 원형의 돌 두루미식 구조인데, 중부동해안 지역의 동시기 집자리와 동일한 양상이다. 다만 양양 가평리 1호 집자리와 강릉 방동리 2호 집자리에서만 구덩식과 평지식의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경리의 집자리 중 원형은 규모도 작고 내부시설도 거의 없는 반면, 방형은 화덕시설이 설치된 것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 차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견해가 있다(임상택 2009).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지역과 시기적인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형은 양양지역의 초기 전반, 원형은 강릉지역의 초기 후반에 유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1] 강릉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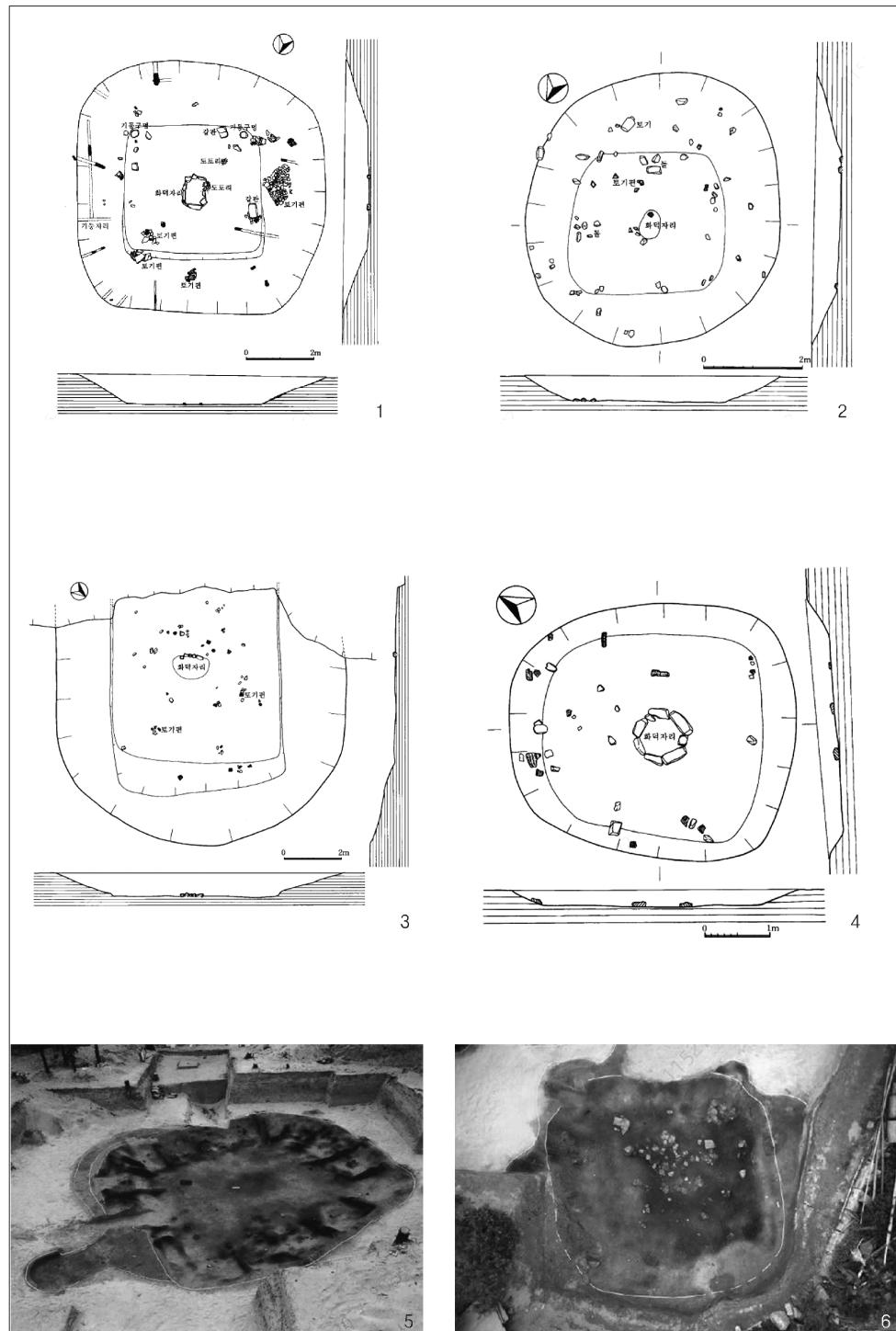
유적	유구	평면형태	규모(cm)	화덕시설		바닥	기타
				평면(구조)	규모(cm)		
초당동 허균- 허난설헌	1호	원형	540×490	원형(돌두름식)	90×80	생토	-
	2호	원형	560×510	-	-	생토	-
	3호	원형	660×620	원형(돌두름식)	80×50	생토	벽가배열 기둥, 일부바닥 진흙다짐
	4호	원형	470×350	-	-	생토	-
초당동 하수관로	2-1호	(원형)	(310×150)	?	?	점토	-
	2-2호	(방형)	(250×150)	?	?	생토	-
	2-3호	(방형)	(200×140)	?	?	점토	-
	3-1호	(방형)	(480×35)	?	?	생토	-
	3-2호	(원형)	(190×70)	?	?	생토	-
초당동 하수관로	4-1호	(방형)	(210×40)	?	?	생토	-
	4-2호	(원형)	(210×60)	?	?	생토	-
	4-3호	(방형)	(190×110)	?	?	생토	-
	4-4호	(방형)	(340×100)	?	?	생토	-
초당동 247	1호	(원형)	(448)×(362)	-	-	생토	-
초당동 394-3	1호	원형	370×370	-	-	생토	-
	2호	원형	620×608	원형(돌두름식)	?	생토	-
초당동 287-14	1호	(원형)	490×(76)	-	-	생토	-
	2호	(원형)	300×(132)	-	-	생토	-
하시동	1호	원형	500×500	원형(돌두름식)	30×10	생토	-
방동리 63-20	1호	원형(방형)	726~800 630×516	타원형(구덩식)	136×80	생토	2단 굴광 집자리
	2호	(타)원형	646×(436) 452×(320)	원형(평지식?)	84×70	생토	2단 굴광 집자리
	3호	(타)원형	(370×242)	?	?	생토	2단 굴광 집자리

초당동 유적을 비롯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는 대부분 사구지대에 입지하여 집자리 내부에서 기둥구멍 흔적이 확인된 예가 많지 않다. 초당동 유적에서는 허균-허난설헌 유적의 3호 집자리에서만 내부 벽 가를 따라 17개의 기둥구멍이 100~120cm 거리를 두고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일부 양양 가평리와 지경리 유적의 집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대부분의 집자리에서는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불탄 집자리에서 간혹 서



[그림 2] 강릉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1. 허균-허난설현 1호, 2. 허균-허난설현 3호, 3. 394-3번 2호, 4. 하시동 1호, 5. 방동리 1호, 6. 방동리 2호)



[그림 3] 양양지역 신석기시대 중기 집자리

(1. 지경리 4호, 2. 지경리 5호, 3. 지경리 7호, 4. 지경리 10호, 5. 가평리 1호, 6. 송전리 2호)

까래나 기둥의 탄화 솟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집자리가 입지하는 사구지대의 지형적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집자리 바닥은 집자리가 입지한 해안사구의 모래층을 그대로 사용한 예가 대부분인데, 허균-허난설헌 유적 3호 집자리의 화덕자리 주위로 약간의 점토 다짐을 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중부동해안지역의 동시기에 해당하는 양양 지경리 유적 등의 집자리에서는 점토 다짐을 한 예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초당동 신석기시대 집자리 바닥도 어떠한 식으로든 바닥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집자리 바닥이 불에 탄 검은색의 모래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을 통해 보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구지대의 특징상 모래위에 진흙다짐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래 속으로 흡수되어 잘 남아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집자리에서는 양양 가평리 1호 집자리에서만 돌출된 구조의 출입구시설이 확인되었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집자리는 제1사구지대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포호에 가까운 북쪽에 집중적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초당동 유적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후~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시기에 따른 약간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2. 야외 시설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확인된 집자리 이외의 유구로는 야외 화덕시설과 움구덩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야외 화덕시설인데, 조사자들에 의해 야외노지, 집석유구, 할석유구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³⁾ 여기에서는 이들 유구가 모두 불을 이용한 행위를 하기 위해 조성된 유구라는 공통점을 가진 동일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하여 야외 화덕시설로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강릉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확인된 야외 화덕시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유적 보고자는 유적에서 확인된 야외시설 10기를 유구의 형태와 할석 배치방법 등을 고려하여 야외 화덕시설(야외노지)은 구덩이 있고 솟을 포함한 검은 모래를 함유하며 할석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것이라 보았다. 돌무지유구(할석유구)는 구덩이 없으며, 검은 모래가 적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검은 모래와 솟 조각의 노출 차이는 야외 시설들이 폐기될 시 불이 완전히 타 제만 남았을 시에는 토층이 검지 않을 것이고, 불완전 연소시에는 검은 모래와 솟이 노출될 것으로 판단하였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104기인데, 강릉 안현동 유적에서 조사된 62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유적에서 확인된 야외 화덕시설은 42기이며, 이중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는 31기가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은 공통적인 재료로 할석이나 냇돌을 사용하고, 대부분 원형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야외 화덕시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불을 사용하여 할석이나 냇돌이 많이 깨져 있는 특징을 지닌다.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에 대해서는 홍은경(2005)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야외 화덕시설을 식재료의 조리시설로 전제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의 단면형태를 분류하여 편평형, 오목형, 분산형, 하부형 집석노지, 무시설노지 등 6가지로 형식 분류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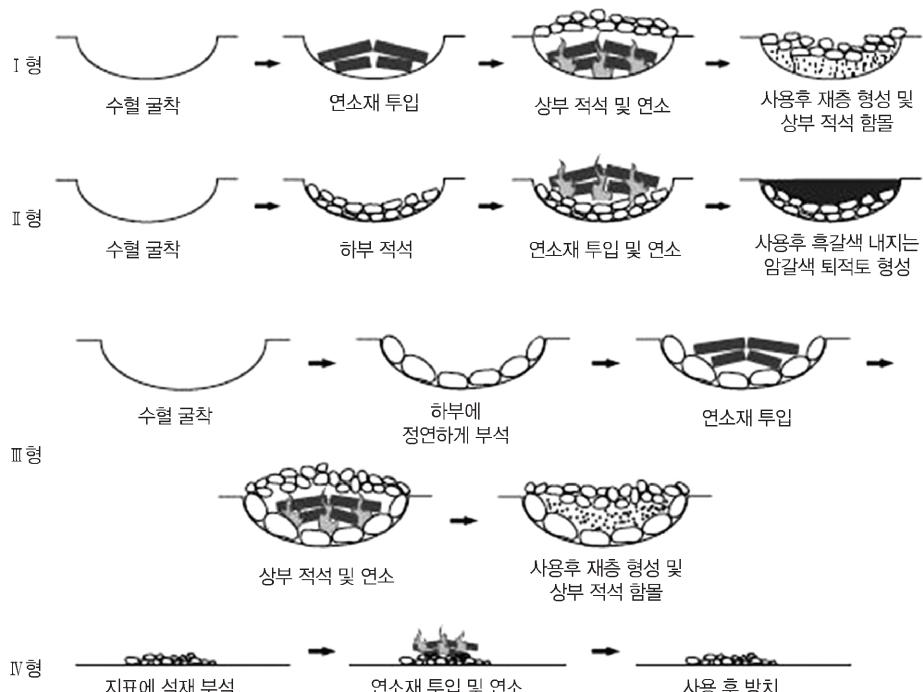
이를 민족지자료의 분석을 통해 각 야외 화덕시설의 형태에 따라 선호되는 조리법(굽기, 찌기)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에 대해서는 편평형 야외 화덕시설(제1형식)이 주를 이루며, 타 지역에 비해 야외 화덕시설의 규모가 큰 편이라 보았다. 이는 중부동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진 생계 방식과 관련하여 한 번에 다량의 연어를 조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초당동 유적을 비롯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의 내부는 대부분 할석 혹은 냇돌과 불에 그을린 검은 모래로 채워져 있다. 돌은 불의 영향으로 검게 그을려 있으며 표면이 갈라져 부서진 경우가 많다. 유물은 주로 내부를 채우고 있는 할석(냇돌) 상부에서 토기편과 석촉 등이 소량 출토되고 있으며, 탄화된 도토리가 수습되기도 하였다. 야외 화덕시설에 돌을 이용하였던 이유는 뜨겁게 달구어진 돌이 비교적 열을 오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데, 돌 위에 가열된 재료를 옮겨놓아 이 물질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반복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조리시설이다.

이밖에 중부동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만을 대상으로 축조방법과 단면형태에 근거해 형식 분류한 이수진(2010)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야외 화덕시설을 크게 구덩식(수혈식)과 평지식(지상식)으로 나누었다. 구덩식은 생활면을 반타원형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구덩이의 깊이는 대체로 20~40cm로 확인된다. 내부에는 불 맞은 할석과 모래가 채워져 있다. 평지식에서는 굴착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표면을 미미하게 정지하거나 지표면에 설치하였다. 지상에 불 맞은 할석과 모래, 목탄흔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중부동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야외 화덕시설의 구조를 보면, 강릉 안현동

유적(평창 용항리 유적)의 보고자가 분류한 기준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이 분류안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 형식 분류 모식도(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먼저 I 형은 구덩이를 굽착하여 연소재를 넣고 그 위에 돌을 쌓은 형식으로 이러한 축조 방식은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단면형태로 보아 반타원형의 굽착면에 연소재를 넣고 불을 피운 후, 연소재 위에 작은 할석을 올려 돌을 가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면은 할석의 상면으로 보이며, 유물이나 도토리 등도 모두 할석의 상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형식의 특징은 연소재가 탄 후에 단면상 중심부가 오목하게 험몰되는 양상을 보이며, 그 아래는 재충이나 소토 등으로 채워진 것이다.

II 형은 구덩이의 굽착면을 따라 천석 혹은 할석을 깔거나 비교적 큰 석재를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2~3단 쌓고 중앙부에 작은 할석을 채운 형식으로 구덩이 내의 석재 상면에 연소재와 가열하고자 하는 물체를 동시에 넣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형식의 특징은 사용 후에는 내부에 흑갈색이나 암갈색 등의 퇴적토가 형성되는데, 이는 사용 후 남은 재와 퇴적토가 섞여서 변색된 것이다. 이러

[표 2] 강릉지역 신석기시대 야외시설(집자리 외) 현황

(야-야외 화덕시설, 돌-돌무지유구, 움-움구덩)

유적	유구	평면형태	규모(cm)	내부구조	출토유물
초당동 허균-허난설현	1호 야	원형	200×200×15	불맞은 소량 할석(수혈)	동물뼈, 도토리
	2호 야	원형	100×100×15	불맞은 소량 할석(수혈)	-
	3호 야	원형	110×110×15	불맞은 다량 할석(수혈)	목탄
	4호 야	원형	150×150×15	불맞은 다량 할석(수혈)	-
	5호 야	원형	290×290×30	불맞은 다량 할석(수혈)	토기편
	1호 돌	원형	115×115	다량 할석(평지)	석축, 토기편
	2호 돌	(타)원형	80×60	약간 할석(평지)	토기편
	3호 돌	원형	130×130	다량 할석(평지)	토기편
	4호 돌	원형	135×135	다량 할석(평지)	-
	5호 돌	원형(?)	230×285	약간 할석(평지)	동물뼈
초당동 386-2	1호 돌	타원형	191×127×20	할석(30cm)과 강돌(15cm)	-
	2호 돌	타원형	180×130×10	강돌(20cm)	-
	1호 움	타원형	154×93×24	흙색 사질토	-
초당동 월성로-허균생가	1호 돌	원형	195×220×25	불맞은 할석과 흑색 모래	-
	2호 돌	타원형	400×280×25	불맞은 할석과 흑색 모래	석축, 토기편, 도토리
	3호 돌	타원형	330×360×35	불맞은 할석과 흑색 모래	토기편
	4호 돌	타원형	270×290×35	불맞은 할석과 흑색 모래	토기편
	5호 돌	타원형	190×240×17	불맞은 할석과 흑색 모래	토기편
초당동 월성로-허균생가	6호 돌	원형	240×280×40	불맞은 할석과 흑색 모래	-
	7호 돌	타원형	180×200×15	불맞은 할석과 흑색 모래	-
초당동 287-14	1호 야	타원형	286×236×20	불맞은 할석과 강돌	토기편
초당동 278	1호 야	원형	250×240×17	상부 할석, 아래 불맞은 흑색 모래	-
초당동 245	1호 야	원형	190×190	작은 할석과 불맞은 검붉은 모래(평지)	-
초당동 394-3	1호 돌	원형	340×325×60	불맞은 할석과 흑색 모래	토기편, 그물주
	1호 움	(원형)	(30)×(160)×38	-	토기편
	2호 움	(원형)	(190)×(80)×29	-	토기편, 그물주, 갈돌
	3호 움	원형	150×140×22	-	토기편
	4호 움	원형	260×(180)×24	-	토기편
초당동 237-1	1호 야	원형	560×530×56	불맞은 석재와 회흑색 모래	토기편
	2호 야	(타)원형	240×176×32	불맞은 석재와 회흑색 모래	-
	3호 야	원형	237×220×31	불맞은 석재와 회흑색 모래	-
	4호 야	원형	184×160×15	불맞은 석재와 회흑색 모래	-
	5호 야	원형	166×142×20	불맞은 석재와 회흑색 모래	-
	1호 움	원형	216×185×52	-	-
	2호 움	원형	192×148×36	-	-
초당동 238-1	1호 야	원형	176×178×22	흙갈색 모래와 목탄	토기편
	2호 야	(원형)	(80×120)×23	불맞은 석재와 흙갈색 모래	토기편
	3호 야	원형	208×212×28	흙갈색 모래	토기편
초당동 히수관로	음(6기)	(원형)	(120~60×110~50) ×15~40	-	석기, 토기편
강릉 안인리	1호 야	타원형	199×140×13	바닥면 피열흔과 목탄(수혈)	토기편
강릉 영진리	1호 야	원형	155×135	불규칙한 크기의 불맞은 할석	토기편
강릉 방동리 가둔지	1호 야	타원형	160×110×42	불맞은 할석과 흑색사질토	-
	1~9호 움	원형	120~70×30~40	-	-
강릉 방동리 66-3	1호 돌	(타)원형	10.2m(9기 연접)	불맞은 할석과 목탄(암흑색 모래)	토기편
	1호 토기요	원형	540×540×63 96×31(할석부)	기운데 불맞은 강돌 다량 전반적으로 흙색 사질토	토기편, 도토리, 구멍 뚫린 강돌
강릉 금진리 458	1호 야	원형	118×(40)×26	불맞은 자갈들, 내부 흑색 모래	-
	2호 야	원형	185×(86)×24	불맞은 자갈들, 내부 흑색 모래	토기편
강릉 금진리 수련원	1호 야	원형	190×190×15	불맞은 자갈들, 내부 흑색 모래	-
강릉 안현동				62개의 야외 화덕시설 확인	
강릉 하시동				7개 돌무지시설과 16개의 움구덩 확인 - 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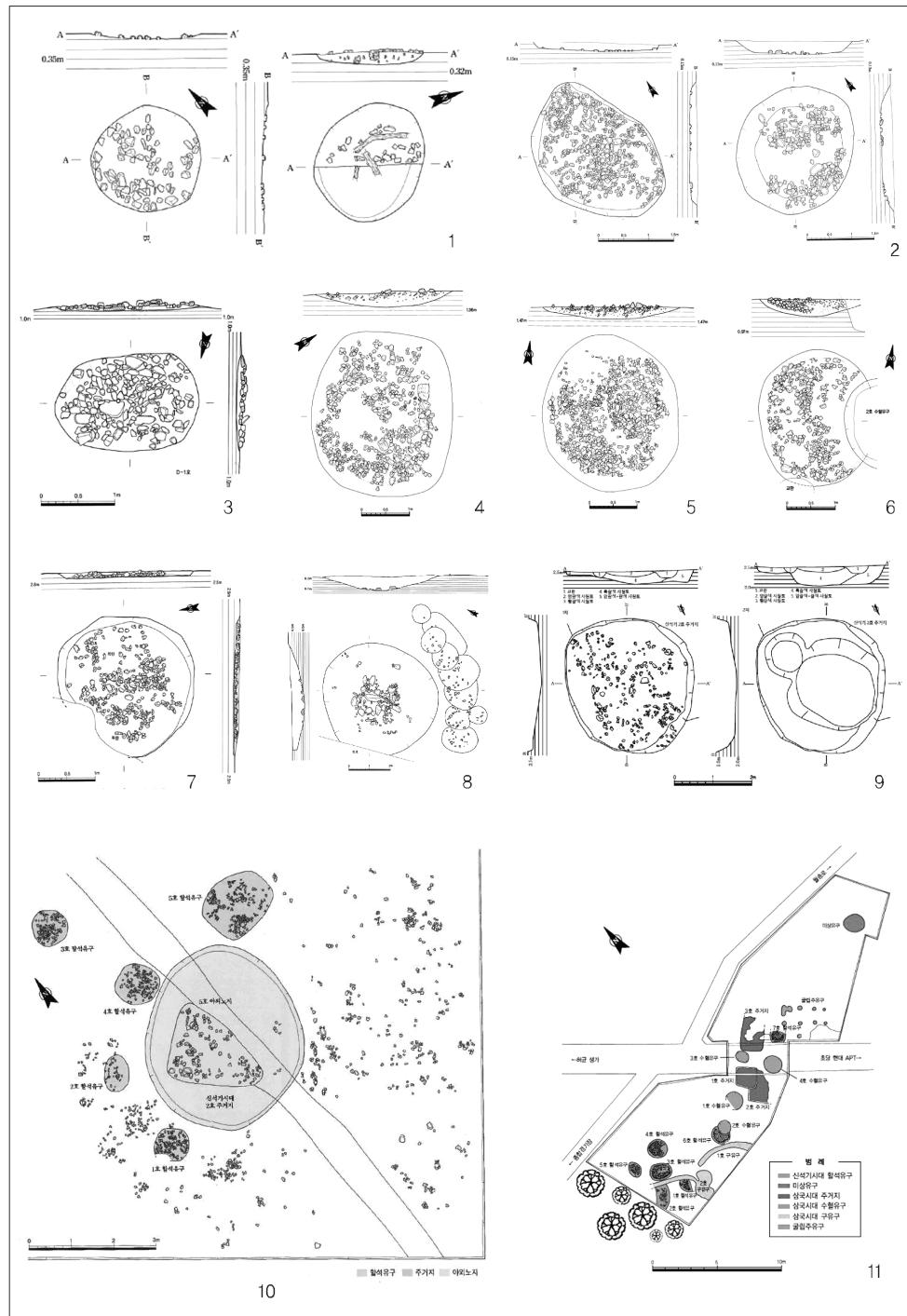
한 구조의 야외 화덕시설은 초당동 허균-허난설햐 유적에서 2기, 287-14번지 유적에서 1기를 비롯하여 양양 용호리 유적에서 5기 등이 조사되었다.

Ⅲ형은 Ⅱ형과 비교할 때 구덩이를 굴착한 후, 하부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연소재를 올리는 것까지는 동일하나 다시 그 상부에 돌을 쌓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중부동해안지역에서는 안현동 48호 야외 화덕시설과 초당동 5호 야외 화덕시설에서 확인된다. 중부내륙지역인 평창 용항리 유적에서도 4기가 확인되었다. 이 형식의 특징은 밀집도가 높고 다량의 재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강하게 피열되어 일부 돌들은 심하게 박리되고 갈라터진 상태로 확인된다. 용항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하부에 큰 석재를 넣는데, 이는 야외 화덕시설이 달궈진 돌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하부에 큰 석재를 쌓으면 돌을 달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달궈진 돌들은 일정한 고온을 오랜 시간 유지하기 때문에 보온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보인다.

IV형은 구덩이를 굴착하지 않은 평지식으로 바닥을 정지하거나 맨바닥에 1~2단의 할석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연소재를 올려놓고 사용하였거나 초당동 2호 집자리 가장자리에서 확인된 5기의 야외 화덕시설로 보았을 때, 야외 화덕시설 내에서 소토나 목탄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모두 집자리의 어깨선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아 불을 피우는 행위가 이루어 졌다가 보다는 가열된 돌을 옮겨와 조성된 보조적 성격의 것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강릉 안현동 유적과 고성 문암리 유적 등에서 매우 소수가 확인되고 있다.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은 구덩식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구덩이의 상부에 작은 할석이 놓여 있는 I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홍은경(2005)이 제시한 굽기나 찌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야외 화덕시설 중 Ⅱ형식과 Ⅲ형식은 아직까지도 민간에서 감자 등의 조리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평지식은 가열된 돌을 이용한 보조적 기능을 했거나, 일회용 혹은 단기 사용 용도의 야외 화덕시설로 보인다.

중부동해안지역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은 마을 내에서 집자리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와 집자리 없이 야외 화덕시설만 무리를 이루어 조성되어 있는 경우로 분류된다. 강릉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 중 전자는 초당동, 하시동, 방동리 유적 등이 있으며, 후자는 안인리, 금진리, 안현동, 영진리 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야외 화덕시설만 확인된 유적 중에서는 조사된 지역이 좁아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



[그림 5] 강릉지역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

(1. 허균-허난설현 3호, 2. 허균-허난설현 5호, 3. 386-2번지 1호, 4. 월성로-허균생가 3호, 5. 월성로-허균생가 4호, 6. 월성로-허균생가 6호, 7. 278번지, 8. 방돌리 가둔지, 9. 394-3번지 1호, 10. 허균-허난설현 유구배지도, 11. 월성로-허균생가 유구배지도)

도 높다.

중부동해안지역에서 야외 화덕시설만 확인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양양 용호리와 강릉 안현동 유적이 있다. 이들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 유적은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는데, 야외 화덕시설만 확인된 유적은 주로 해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해안 인근이나 사구지대 배후의 구릉지역과 인접한 사구지대의 끝단 등 유적의 외곽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야외 화덕시설의 위치는 화재의 피해로부터 주거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식재료의 획득과 가공 및 조리 공간이 가장 효율적인 동선에 배치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로활동을 등을 통해 획득한 식재료는 해안(혹은 석호) 인근에서 가공하거나 조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도토리 등의 식물성식료는 구릉지역에 인접한 위치에서 가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야외 화덕시설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부분 그물추 등 어로활동과 관련된 도구나 석촉 등의 수렵용 도구로 토기류의 비중은 주거유적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야외 화덕시설 중 규모가 큰 것을 토기 가마로 판단한 경우(배성혁 2007)도 있으나, 야외 화덕시설의 단면형태는 구조적으로 토기 가마로 사용되기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토기 가마라면 토기를 고정시키는 구조물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확인된 바가 없다. 민족지자료에서 보이는 토기 소성방식을 살펴보아도 야외 화덕시설의 공통점은 벽과 천정이 없다는 것뿐이며, 특히 야외 화덕시설에서와 같이 돌이 쌓여 있는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홍은경 2005).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된 야외 화덕시설의 구조로 판단할 때, 토기 가마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야외 화덕시설의 단면형태와 지방산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식재료의 조리시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V.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출토유물 검토

여기에서는 초당동을 비롯한 강릉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강릉지역 이외의 중부동해안지역 중기 이후의 유적들과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의 편년은 양양 지경리 유적의 조사 성과를 전제로 설정되고 있다. 앞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에 대한 인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양 지경리 유적 6호와 7호 집자리의 중복관계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을 토대로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가 주류를 이루면 중기 전반(4호 집자리군), 태선문 시문기법이나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혹은 능격문토기와 강상리식토기)가 주로 출토되면 중기 후반(6호 집자리)으로 보아 초당동 유적을 중기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우선 허균-허난설현 유적 보고자(강원문화재연구소 2006a)는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구연부에 단사선문, 동체부에 횡주어골문, 저부에 선문이 시문된 구분문계의 토기를 I 기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태선
침선문의 시문기법
이 남아 있는 삼각집
선문, 능형집선문, 제
형집선문 등의 집선
문계 빗살무늬토기는
수가리 I 식토기
와 유이하고 퇴화양
상이 보이지만 태선
침선문 기법이 지경
리보다 많이 남아 있
으며, 문양이 정연하
고 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오히려 지경리
II 기보다 좀 빠르거
나 같은 시기로 판단
하여 구연부 집선문
계를 II 기로 구분하
였다. 마지막으로 구
연부에 한정된 가는

구 분	토 기
I 기	
II 기	
III 기	

[그림 6] 허균-허난설현 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편년표(강원문화재연구소 200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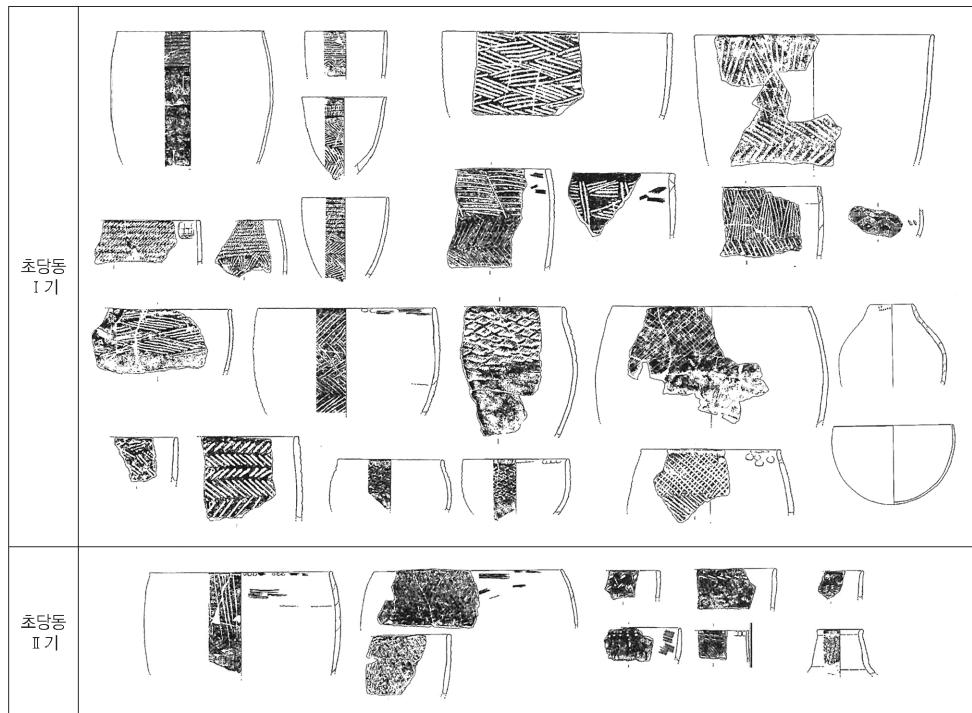
침선문의 조합하고 흐트러진 문양, 구연부 아래의 사단선문, 무문 등은 Ⅲ기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지경리 유적의 I기와 II기 구분 및 중서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 편년기준을 대입시킨 결과로 보인다(그림 6 참조).

임상택(2009)은 2009년까지 조사된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빗살무늬토기를 허균-허난설현 유적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의 특징은 크게 구연문으로 단사선문, 능형집선문, 삼각집선문, 제형집선문, 횡주어골문, 격자문, 능격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소위 강상리식토기로 볼 수 있는 점열능형문, 횡침선문, 횡침선+단침선문, 점열문, 사단선문(단사침선문), 지자문 등이 소수 문양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동체문양은 대부분 횡주어골문과 무문양이며 종주어골문도 극소량 확인된다. 어깨문은 잘 확인되지 않는데 축약된 종주어골문 또는 거치문이 일부 존재한다. 침선문의 시문방법에서는 태선식 시문방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세침선화 한 것들도 많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기본적으로 지경리 6호 집자리 단계와 거의 흡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지경리 유적이나 남부지역 태선문 빗살무늬토기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는데, 지경리 6호 집자리는 삼각집선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허균-허난설현 유적은 능형집선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집선문 비율의 차이는 유적의 세부적인 시기 차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수가리 유적의 경우 삼각집선문과 능형집선문의 출토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삼각집선문이 하층(VI, V층)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초당동 허균-허난설현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문양으로는 사단선문이 있는데, 이 문양은 허균-허난설현 유적 집자리에서는 보이지 않고, 생활면에서만 확인된다. 집자리 내부 출토 빗살무늬토기들과는 문양형태나 시문부위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지자문토기 및 난선문토기 등과 함께 후기 이후 단계로 보았다(그림 7 참조).

남부지역의 태선문 빗살무늬토기와 다른 점은 초당동 허균-허난설현 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에서 비후구연이 거의 보이지 않은 반면, 수가리 유적의 수가리 I식토기에서는 비후구연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비후구연의 비율이 낮은 것이 중부동해안지역의 지역적 특징인지 또는 시기 차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수가리 I식토기보다는 약간 늦은 단계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시기 차로 보고 있다. 남부지역과의 병행관계에서는 수가리 I식 토기 중 복합문



[그림 7] 초당동 신석기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편년(임상택 2009)

계(구분문계)가 상대적으로 선행하고 단독문계가 늦다는 편년을 참고하여 중부동해안지역의 중기 후반은 남부지역 단독문계 중심단계에 병행한다고 보았다. 이에 중부동해안지역 중기 전반(중서부전통)은 수가리 1식토기 중 복합문계 단계와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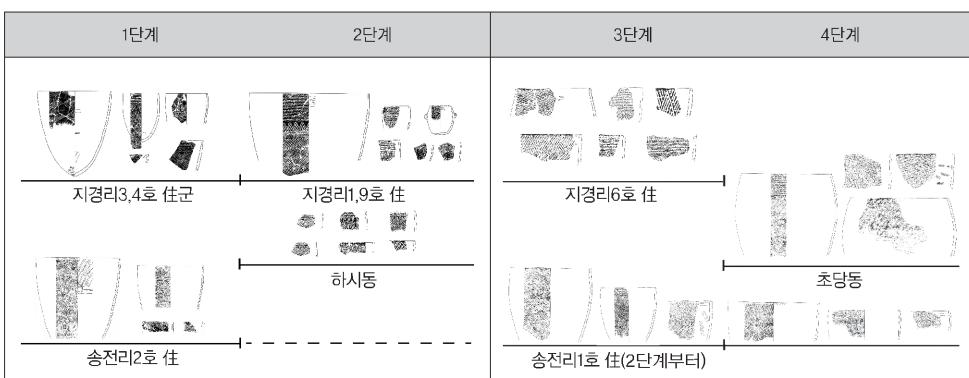
그러나 지경리 4호 집자리 단계의 절대연대가 6호 집자리 단계(초당동 I 기)와 시기차가 크지 않고, 수가리 I기의 절대연대와 거의 비슷한 점을 고려한다면 병행할 가능성도 있어 일정기간 중서부계통의 토기문화와 남부계통의 토기문화 집단이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초당동 I기의 빗살무늬토기가 주로 복합문 또는 전면(저부생략 포함)시문 토기가 많다는 점에서 확인되는데, 이것이 지역차인지 아니면 시기차인지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4) 그는 중부동해안지역에서 전형적인 태선문 빗살무늬토기 단계가 존재한다면, 그 단계가 중부동해안지역 중기 전반(지경리 4호 집자리 단계)과 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 간에도 선후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지경리나 초당동 유적에서 전형적인 태선시문방식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비후구연 토기 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전형적 태선문토기 중심 단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였다(임상택 2009).

이밖에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빗살무늬토기를 시기구분 및 변화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임수진 2013). 중부동해안지역의 중기를 기준의 편년안 중 중기 전반을 1단계와 2단계로, 중기 후반을 3단계와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들 각 단계의 영향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기 전반은 중심문양인 단사선문을 대상으로 단사선문 간격, 문양소 길이, 대수, 시문되는 문양의 종류, 종속문 등의 세부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능격문토기, 동체부 태선침선기법, 강상리식토기의 존재를 근거로 지경리 1호와 9호 집자리를 분리해내어 기준의 중기 전반을 두 단계로 나누었다.

기준의 중기 후반은 중서부지역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지경리 6호 집자리와 초당동 유적을 비교·분석하였다. 그중에서 앞서 검토한 단사선문의 빗살무늬토기 속성에 문양배치를 더해 살펴본 결과, 지경리 6호 집자리에 비해 초당동 유적이 단사선문의 퇴화가 더 두드러지며, 집선문의 시문에서도 정형성이 떨어져 더 늦은 시기로 판단하였다(그림 8 참조).



[그림 8] 중부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중기 빗살무늬토기 편년(임수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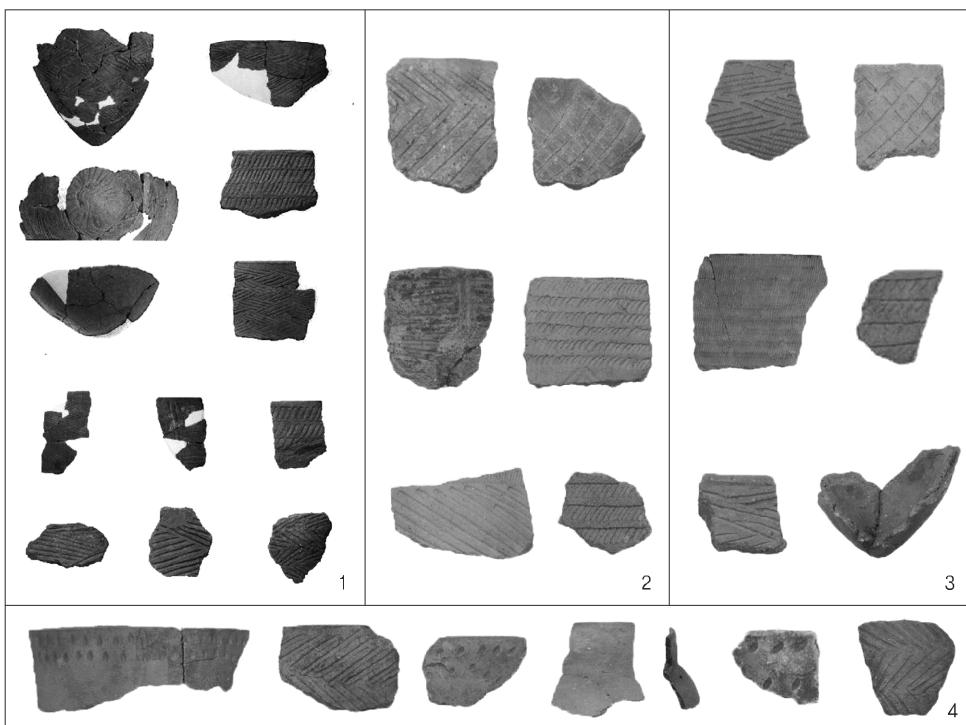
그런데 초당동 유적을 비롯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편년기준과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구분문계 혹은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더불어 초당동 신석기유적은 어렵게도 신석기시대 유구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값이 많지 않아 절대연대를 통한 유적의 시기를 상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초당동 247번지 유적의 집자리에서 4720 ± 60 B.P.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을 얻어 시기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집자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의

시문된 문양을 살펴보면, 구연부 문양으로는 능형집선문과 단사선문, 제형집선문이 확인되며, 동체부 문양으로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초당동 394-3번지 유적의 2호 집자리에서도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이루어 졌는데, 4020 ± 40 B.P.이다. 2호 집자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능형점열문, 사격자문, 단사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2호 집자리를 파괴하고 들어선 1호 집자리에서는 구연부 문양으로 사격자문, 제형집선문, 단사선문,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고, 유공파수편 3점도 함께 출토하였다. 그 중에서 단사선문 아래 종속문인지 불확실하지만 복합문이 시문되어 있는 것과 동체부에 단사선문 아래로 사선문이 시문된 토기편도 함께 출토되었다.

초당동 394-3번지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도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이루어 졌는데, 3540 ± 30 B.P.의 연대값을 보인다. 출토된 유물은 구연부에 횡주어골문과 사단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고 있어 신석기시대 후기의 늦은 시기 혹은 말기로 판단된다. 이렇듯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이루어진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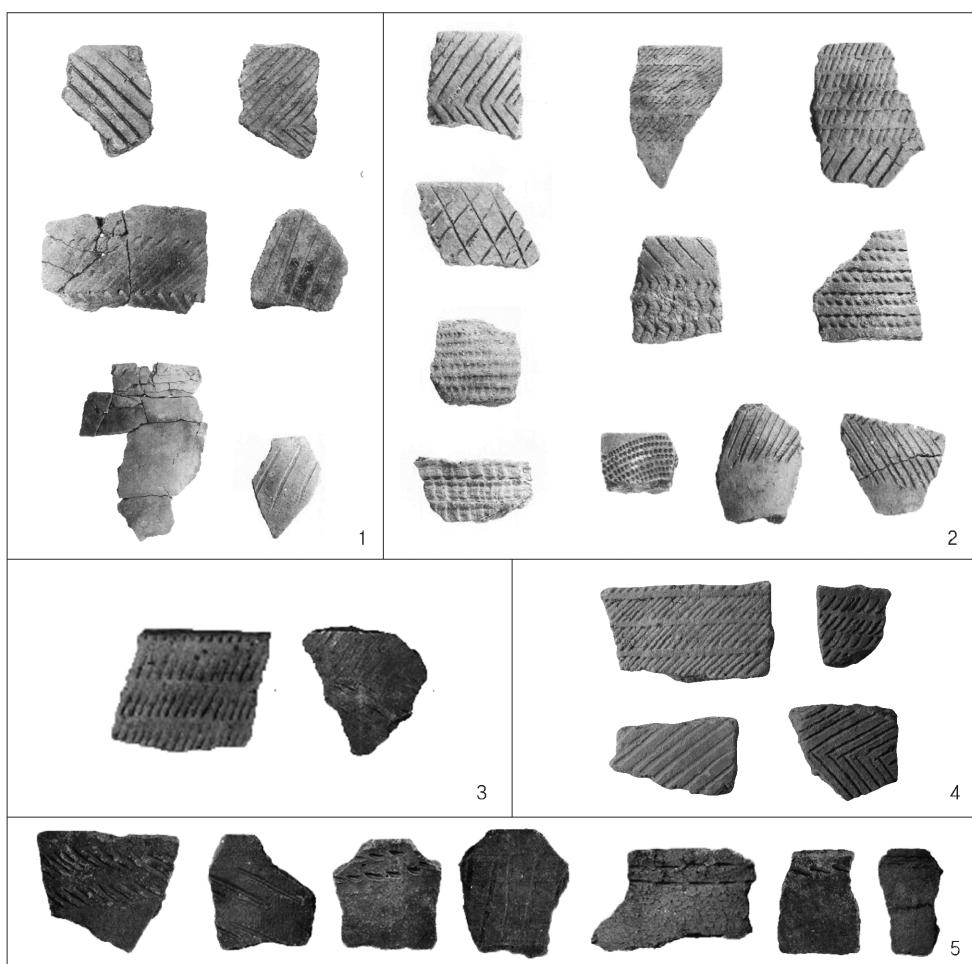


[그림 9] 초당동 신석기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①(방사성탄소연대측정)

(1. 247번지 집자리, 2. 394-3번지 1호 집자리, 3. 394-3번지 2호 집자리, 4. 394-3번지 야외 화덕시설)

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검토해 보면, 가장 이를 연대값을 보인 247번지 집 자리 출토 유물과 비교적 신석기시대 후기의 절대연대값을 보인 394-3번지 유적 집 자리 출토 유물과는 거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굳이 말하자면 247번지 유적의 집자리에서는 능형집선문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격자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사선문, 능형집선문 등의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는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그림 9 참조).

이밖에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유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그림 10]과 같다. 초당동 287-14번지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과 1호 및 2호집자리는 각기 출토된 빗살



[그림 10] 초당동 신석기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②

(1. 287-14번지 1호(위 4점) · 2호(아래 2점) 집자리, 2. 287-14번지 야외 화덕시설
3. 237-1번지 야외 화덕시설, 4. 238-1번지 야외 화덕시설, 5. 월성로-허균생가 야외 화덕시설)

무늬토기의 양상이 다르다. 2호 집자리에서는 사단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어 후~말기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 1호 집자리에서는 횡주어골문 혹은 사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된다. 동유적의 야외 화덕시설에서는 횡주어골문, 단사선문, 사격자문, 타래문, 단사선문+사선문(?) 등의 다양한 문양과 함께 구분문 계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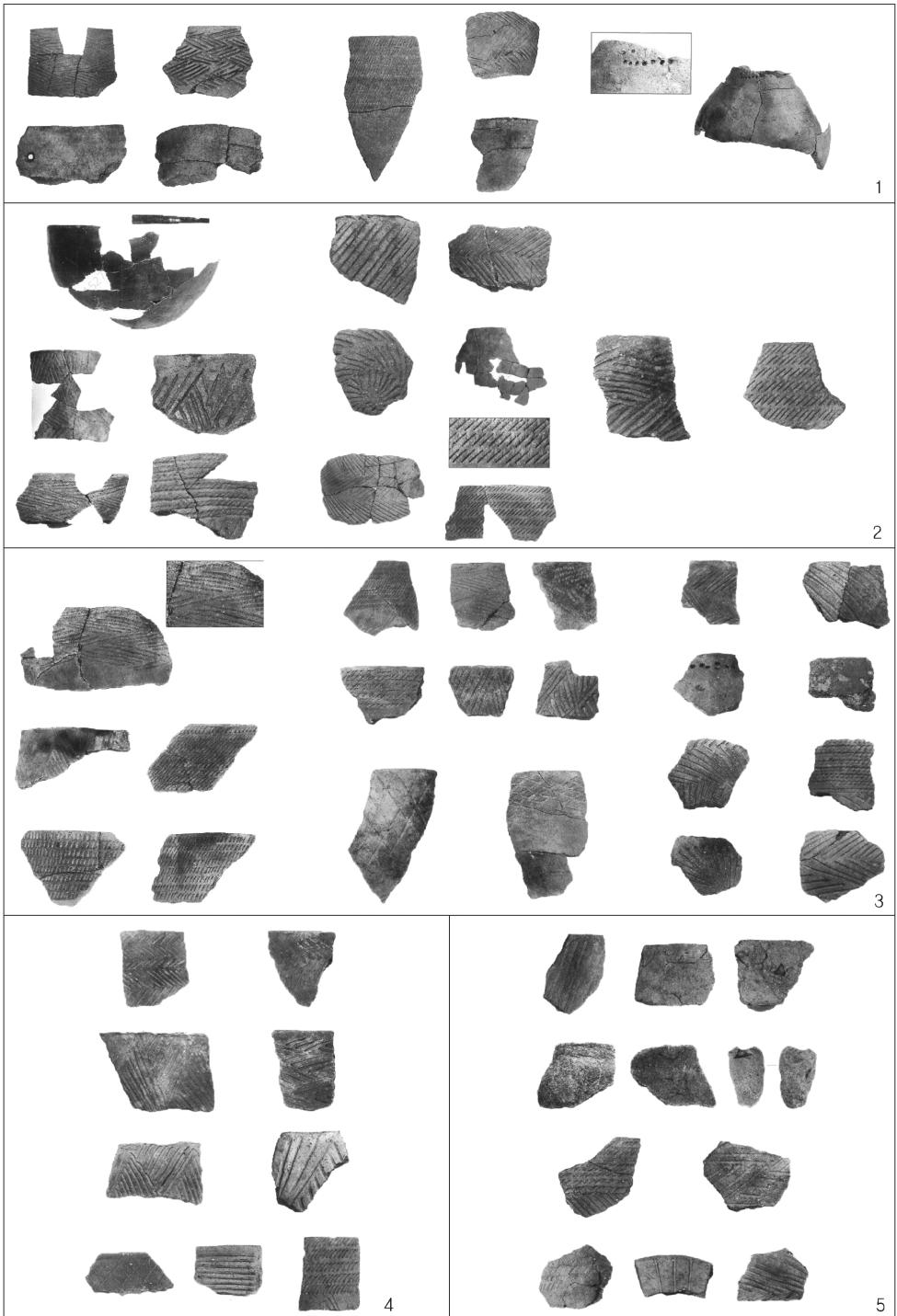
초당동 237-1번지와 238-1번지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에서는 단사선문과 횡주어골문의 빗살무늬토기가 소량 확인된다. 초당동 월성로-허균생가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에서는 횡단선문, 사단선문, 격자문의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어 신석기시대 후~말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횡단선문 혹은 사단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는 중서부지역을 포함한 중부지역의 후~말기 유적의 표지적인 유물로 인식되고 있다(구자진 2020).

마지막으로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허균-허난설헌 유적을 살펴보면, 1호~4호 집자리에서는 능형집선문, 삼각집선문, 단사선문, 횡주어골문, 사격자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점열문이 시문된 호형토기, 적색마연토기, 능격문토기가 일부 집자리에서 확인된다. 또한 3호와 4호 집자리에서 단사선문+거치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도 출토되었다.

허균-허난설헌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에서는 횡단선문, 사선문, 죽관문 등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된 반면, 할석유구로 명명된 유구에서는 능형집선문, 횡주어골문, 단사선문+사선문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그림 11 참조). 결국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는 야외 화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유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유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보면 횡단선문이나 사단선문 등 중부지역 후~말기에 해당하는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는 경우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394-3번지 야외 화덕시설과 287-14번지 2호 집자리, 월성로-허균생가 야외 화덕시설 등이 있다. 반면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대부분 유구에서는 능형집선문, 삼각집선문, 단사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를 중심으로 사격자문, 제형집선문, 능격문토기, 횡주어골문, 연속점열문 등이 출토되는 유구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초당동 신석기유적과 동일권역의 강릉지역 다른 신석기유적의 유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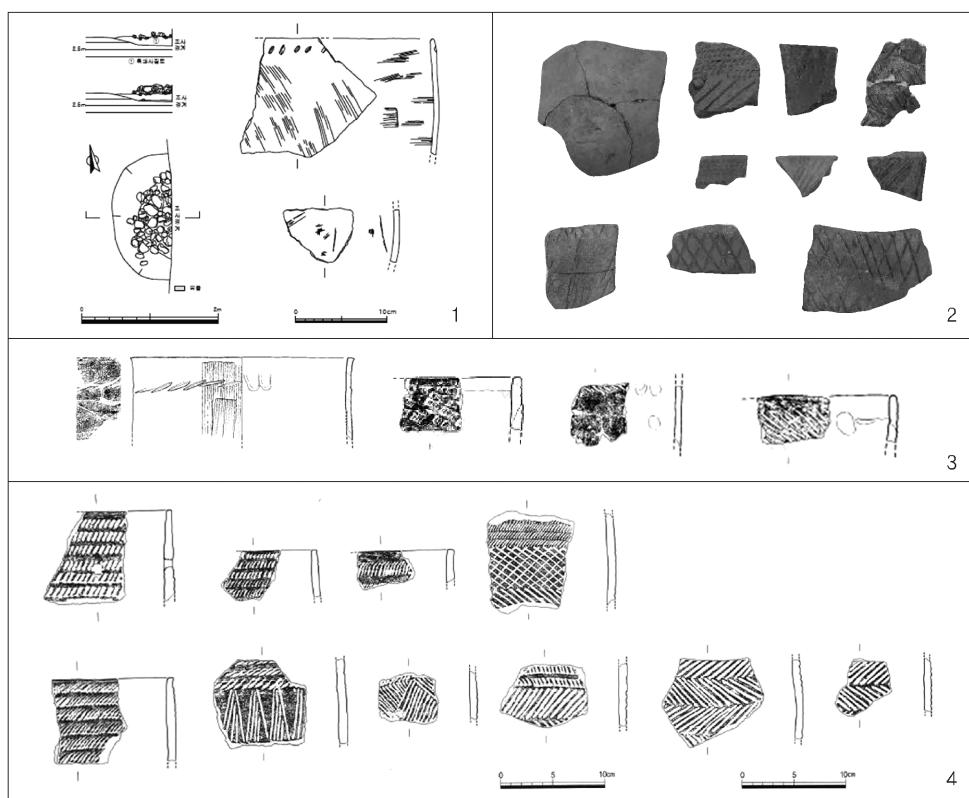
[그림 11]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1. 1호 집자리, 2. 2호 집자리, 3. 3호 집자리, 4. 4호 집자리, 5. 야외 화덕시설 및 할석유구)

하시동 유적의 1호 집자리와 야외 화덕시설에서는 단사선문과 동체문양으로 횡주어 골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부가문(삼각집선, 사격자문 등)이 시문된 토기 가 출토되었다. 그 중 단사선문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강릉 안인리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에서는 점열문, 단사선문, 사격자문, 횡주어골문, 단사선문 혹은 격자문+사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강릉 금진리 458번지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과 안현동 야외 화덕시설에서는 사단 선문 등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금진리 유적의 경우 458번지 유적과 동일 유적인 수련원부지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이루 어졌는데, 4045 ± 25 B.P.와 3940 ± 60 B.P.로 측정되었다.

안현동 유적의 야외 화덕시설에서는 3호(3790 ± 15 B.P.), 5호(4150 ± 25 B.P.), 8호(3540 ± 25 B.P.), 17호(3715 ± 25 B.P.), 21호(3485 ± 20 B.P.), 29호(3855 ± 25 B.P.), 34호(3270 ± 20 B.P.), 50호(3425 ± 20 B.P.), 53호(3475 ± 20 B.P.)의 방사성



[그림 12] 강릉지역 신석기유적 유구 출토 빗살무늬토기

(1. 금진리 458번지 야외 화덕시설, 2. 안인리 야외 화덕시설, 3. 안현동 야외 화덕시설, 4. 하시동 1호 집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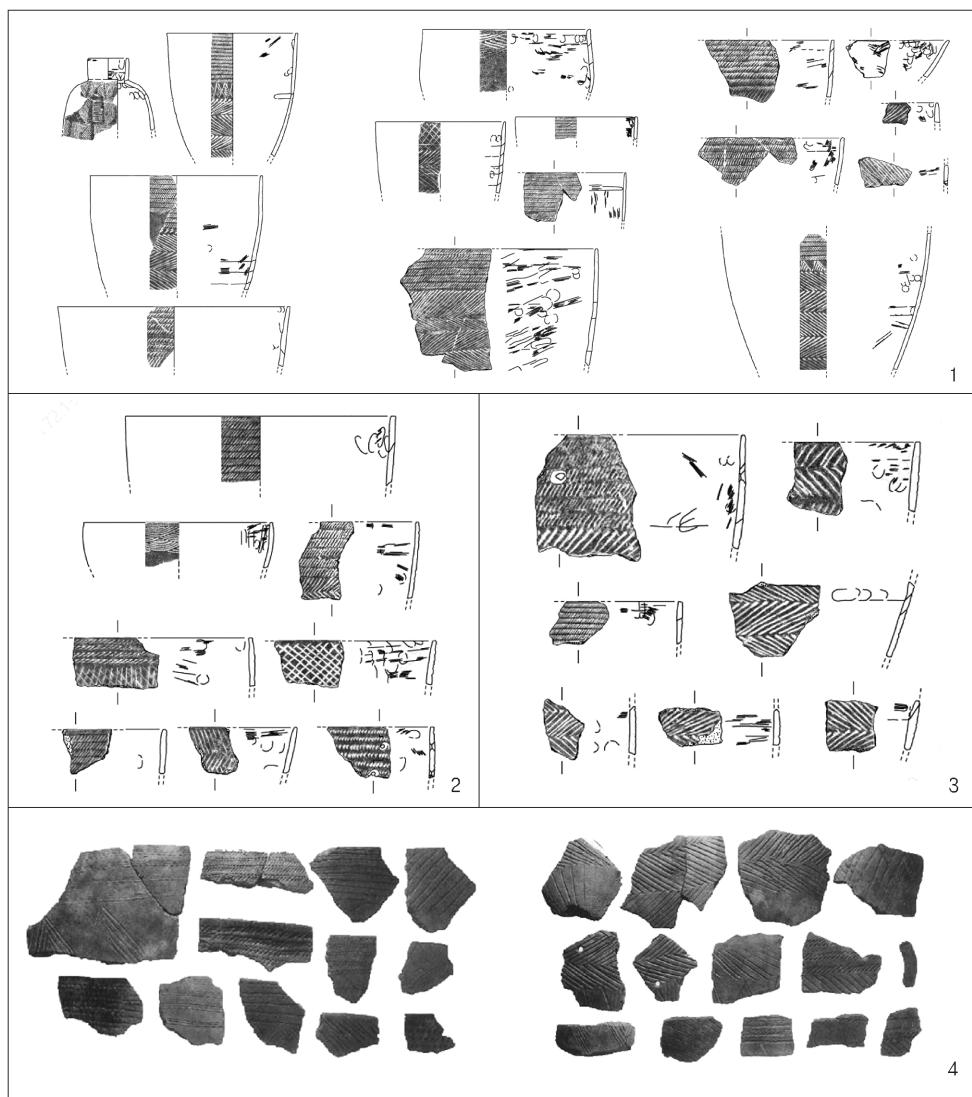
탄소연대측정값이 측정되어 이들 야외 화덕시설은 신석기시대 후~말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강릉 방동리 유적 중 63-20번지 유적에서는 집자리 3기가 조사되었고, 66-3번지 유적에서는 추정 토기 가마가 조사 보고되었다. 유적의 입지로 보아 동일 유적으로 판단되는데, 출토유물도 대동소이하다(그림 13 참조). 63-20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로 구연부 문양으로 단사선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구연부에 횡주어골문, 사격자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도 확인된다. 동체부 문양으로는 대부분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구분문계의 경우에는 단사선문+횡주어골문, 단사선문+사격자문, 사격자문+횡주어골문 등의 빗살무늬토기가 있다. 또한 단사선문+횡주어골문이 시문된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는 단사선문 바로 아래에 횡주어골문이 시문되는 것과 두 문양 사이에 거치문, 사격자문, 직선문, 사선문 등이 추가 시문된 것이 출토되었다. 이밖에 능격문토기 1점과 구연부에 파상 점열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도 출토되었다.

방동리 66-3번지 유적에서는 구연부 문양으로 다양한 단사선문이 확인되며, 사격자문과 점열문 등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도 있다. 부가문으로 종주어골문(거치문?)이나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도 출토되었으며, 동체부 문양으로는 대부분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지금까지 초당동 유적을 비롯한 강릉지역 신석기유적의 유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빗살무늬토기의 구연부 문양을 중심으로 보면 단사선문이 주류인 경우와 집선문(능형, 삼각, 제형 등)이 주류인 경우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초동당 신석기유적에서는 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강릉지역의 신석기 유적 중 하시동, 방동리, 안인리 유적의 경우에는 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또한 초당동 신석기유적을 비롯한 강릉지역의 야외 화덕시설이 확인된 유적은 횡단선문, 사단선문 등의 빗살무늬토기가 주로 출토되고 있어 몇몇 야외 화덕시설을 제외하면 초당동의 야외 화덕시설은 신석기시대 중기보다는 후~말기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초당동을 비롯한 강릉지역 신석기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표 3]과 같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출토된 석기 중 석촉과 그물추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석기 출토양상은 유적이 입지한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부동



[그림 13] 강릉 봉동리 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1. 1호 집자리(63-20), 2. 2호 집자리(63-20), 3. 3호 집자리(63-20), 4. 추정 토기기마(66-3))

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은 어로와 수렵을 중심으로 한 생계방식이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출토된 석기 중에서 주목되는 점은 굴지구류와 석검이다. 이들 석기는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초기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물로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토 수량이 많지 않으나 추후 더 많은 석기가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 석도(석도형 석기)는 평면 장방형에 긴 변의 한쪽은 등을 형성하고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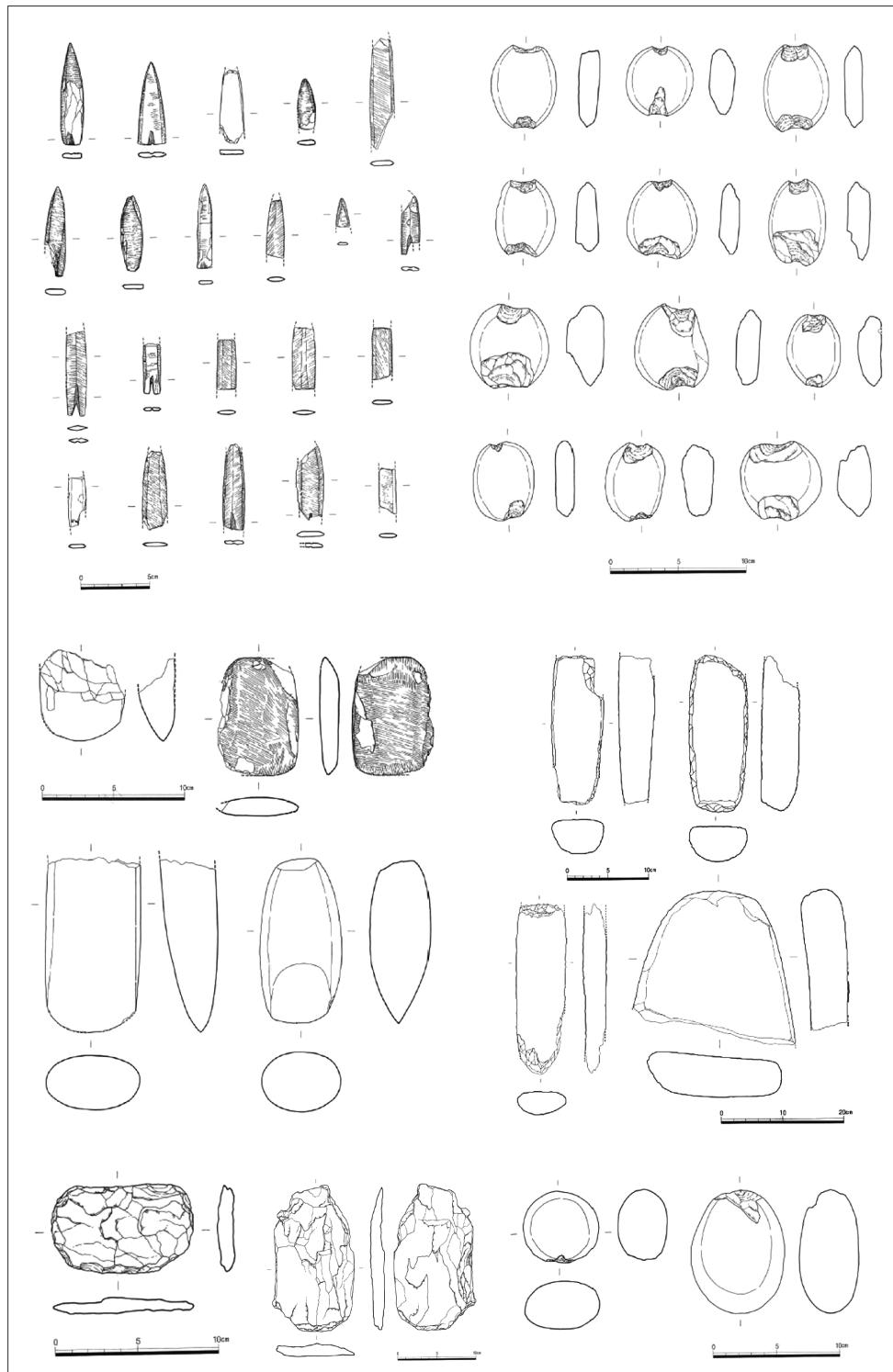
[표 3] 강릉 및 양양지역 신석기유적 출토 석기 현황

유적명	석총	석창	그물추	결합식 조침축	굴지구류	석도	석검	석부	갈돌	갈판	고석	기타
초당동(하균)	40		159		3	9	4	19	24	8	3	
초당동(월송로)	4			1	1							
초당동(287-14)	2		12			1						
초당동(394-3)			8						1			
초당동(하수관로)			2	1								
소계	46	0	181	2	4	10	4	19	25	8	3	
강릉 방동리	14		25					7	7	2		숫자1
강릉 지변동	24		60		1	2		11	26	6	1	
강릉 하시동	2	1	22					2	4	2		숫자1
강릉 안현동	1		16	8		1		2				
양양 송전리	9		86			2		9	4	4	2	숫자7
양양 지경리	17	2	331			4		12	20	10	6	숫자3
양양 가평리	2		2					1	1	1		숫자1

대쪽은 날을 형성한 석기이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가장 많은 10점이 출토되었고 안현동과 지변동 및 송전리와 교동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중부동해안지역의 조·전기에는 어류 등의 식량처리와 관련된 도구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중기 이후 이러한 용도 이외에 초기농경과 관련되어 수확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임상택 2009).

초당동 출토 석도(석도형 석기)의 크기는 8.6~11.1cm이며, 암질은 사암과 편암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 지변동 유적의 것은 세일계 석재를 이용하여 켜면에 따라 빼어진 판재형태로 한 변에 잔손질이 되어 있다. 형태는 장방형 또는 반월형을 가진다. 송전리 유적에서는 사암계 석재로 납작한 몸체를 형성한 후에 전면을 마연하였다. 형태는 반원형으로 밑면을 짹날로 인부를 조성하였다(윤정국 2016).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석기는 동시기의 지경리 유적과 기종구성이나 개별 석기의 형태적 특징에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석기의 기종구성에서 수렵어로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굴지구와 석검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이러한 석기 조성은 중부동해안지역이 바닷가와 인접하고, 석호를 주변에 끼고 있으며, 하천이 짧고 배후에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유적 출토 각종 석기

V.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성격

강릉지역은 태백산맥의 동해사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대부분의 하천은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초당동 지역도 태백산맥 줄기가 서에서 동으로 뻗어 내린 해발 약 4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역과 구릉지역의 동쪽에 맞닿아 있는 넓은 사구지대(해발고도 3~4m)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운정천과 경포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사구지대를 지나 동해바다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하평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초당동 일대에는 모두 세 번에 걸쳐 형성된 사구가 분포하고 있는데, 사구의 형성 위치에 따라 유적의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제1사구지대는 북쪽으로 경포호 남쪽부근에서 시작하여 초당동 마을을 포함하여 남쪽으로 초당동 남쪽 끝 해발 25m 구릉 지역까지 연결되는 길이 1.7km, 너비 100~250m 정도이다.

제2사구지대에는 제1사구지대 동쪽으로 약 100m 거리를 두고 제1사구지대와 평행하게 길이 1.2km, 너비 100~180m 정도이며, 사구의 북쪽부분은 더 넓어져 약 400m에 이른다. 제1사구지대와는 저습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제3, 4사구지대는 제2사구지대 동쪽에서 하평들 건너에 위치한 현재의 동해 바닷가 사구지대로 폭 100~150m이고, 길이는 멀리 안목항으로 연결되고 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제1사구지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초당동 유적을 비롯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은 석호 인근의 사구지대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석호는 해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수역이며, 석호 주변의 습지는 섬금류, 철새, 소형 포유동물 등 생물종이 풍부하여 강의 하구와 맞닿아 있어 어로활동에도 유리하다. 즉 석호 인근의 사구지대는 해수와 해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업 활동에도 매우 유리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집자리(9기+)와 야외 화덕시설(31기+), 움구덩(13기+) 등이 조성된 마을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통해 보면, 신석기 시대 중기에서 후~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은 중기에 다수의 집자리와 함께 야외 화덕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초당동 유적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로 판단할 때, 경포호 남쪽의 허균-허난설헌 유적 주변이 중심 거주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신석기시대 후~말기에는 제1사구지대 전반에 걸쳐 야외 화덕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였으나, 중기에서처럼 동지역에서의 정주를 통한 유적 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은 중기에는 집자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하는 특징(초당동, 방동리, 하시동 유적 등)을 보이나 후~말기가 되면 집자리 유적과 동일한 입지에 위치하기보다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확인된 사례가 많다(강릉 안현동, 양양 용호리 유적 등). 지금까지 확인된 중부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후기 마을(고성 철통리, 대진리 유적 등)이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 거주지역과 먹거리 1차 가공장소가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즉 어류와 기타 먹거리 등을 획득 후, 야외 화덕시설에서 1차 가공처리를 한 후 거주지역으로 가져갔을 것을 추정된다.

초당동 신석기유적 석기조성의 특징은 중부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전기에 대표적 어로용 도구로 사용되던 결합식 낚시나 작살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다량의 그물추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결국 그물추를 이용한 어로방법으로는 연어와 송어류 등을 포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해안은 동해로 유입되는 강의 지천과 석호가 조·전기 이후로 발달하기 때문에 중기에 그물추의 증가는 낚시어법에 비하여 효율적인 어로활동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초당동 신석기유적을 비롯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의 석기조성을 통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당시 생계경제에서 잡곡농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이다(이정재 2009, 조은하 2014, 윤정국 2016). 이는 중서부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유적에서는 초보적인 농경에 사용된 채집농경구의 증가 양상이 뚜렷한 반면, 중부동해안지역에서는 매우 소량의 석기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부동해안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팔의 이용 가능성이 있으며, 중기에 이르면 팔과 더불어 조, 기장, 콩의 이용도 확인된다. 신석기시대 중부동해안지역의 초기농경은 중기에 이르러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팔과 밀, 콩속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류도 식재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비작물류 잡초성 종(조속, 기장속, 기장족, 기장아과 등)의 암흔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밭에 흔히 서식하는 일년생

[표 4] 중부동해안지역 신석기유적 탄화곡물(암흔) 출토 현황(조미순 외 2015)

유적	유구	출토곡물	시기 및 연대관련 자료
오산리	집자리	팥	조기(토기암흔)
	집자리	조, 기장, 들깨, 팥, 조속, 기장속, 기장족	중기(토기암흔)
지경리	집자리	조, 기장, 들깨, 조속, 기장속, 기장족, 콩	중기(토기암흔)
문암리	집자리 야외 화덕시설	조	조기(토기암흔)
		조, 기장, 밀, 콩속	중기(탄화곡물)
		조, 기장, 들깨속, 콩, 조속, 기장속, 기장족	중기(토기암흔)
송전리	집자리	조, 기장, 들깨	중기(점토덩어리 암흔)

기장아과 초본들로 조, 기장, 팥, 콩과 더불어 밭의 생태를 반영한다. 즉 중부동해안 지역에서는 중기부터 밭 재배가 행해졌음을 시사해준다(조미순 외 2015). 더불어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경작유구인 밭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⁵⁾. 밭은 해안 사구의 배후저지에 입지해 있는데 토양에 유기물과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밭 경작지 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다.

결국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 등에 대한 탄화곡물 암흔 분석 결과를 통해 보면, 중부동해안지역은 중기에 초보적인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부동해안지역 신석기유적에서 초기 농경과 관련된 석기 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아 당시 초기 농경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중부동해안지역과 입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중서부지역의 초기 농경과 관련된 유적에서 보이는 석기 조성 양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부동해안지역에서의 초기 농경은 문암리 유적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안 사구의 배후저지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의 초기 농경 유적과 같이 굴지구류를 비롯한 다량의 석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벌목을 통한 화전형태의 초기 농경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중부동해안지역의 초기 농경과 관련된 도구는 석기가 아닌 목기 등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유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중심으로 단계를 구분해 보면 [표 5]과 같다.

5) 고성 문암리 유적의 밭은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하층에서 조사된 밭을 보고자들은 신석기시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하층의 밭도 신석기시대 조성된 밭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소상영 2019a).

[표 5]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편년안

구 분	유 구	토 기	절대연대(BC)
초당동 I 기	허균-허난설현, 하수관로 일부, 247번지, 394-3번지, 287-14번지(야외노지) 등	구분문계 및 구연부 집선문 토기, 능격문토기, 강상리식토기 등	3,500~2,500
초당동 II 기	287-14(집자리), 하수관로 일부, 월송로-허균생가, 237-1번지, 238-1번지 등	횡단선문, 사단선문 빗살무늬토기 등	2,500 ~

초당동 신석기유적은 기존 양양 지경리 유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중부동해안지역의 편년안에 의하면 중기 후반 혹은 지경리 I 기와 II 기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편년안이다. 하지만 초당동 신석기시대 유적의 유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검토해 본 결과, 중서부전통의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와 남부지역의 태선문(혹은 구연부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출토되지 않고, 함께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부동해안지역에서 확인된 유적 중 남부지역의 태선침선기법의 빗살무늬토기 중심의 유적 혹은 유구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 지금까지는 지경리 6호 집자리 이외에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부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중기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을 보아도 중기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된 유구들의 연대값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양 지경리 유적의 경우 4호 집자리와 7호 집자리가 각각 4590 ± 70 B.P.와 4600 ± 80 B.P.이며, 6호 집자리 4420 ± 60 B.P.로 측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단계가 설정된 양양 송전리 유적도 2호 집자리가 1호 집자리보다 선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1호 집자리의 경우 4465 ± 25 B.P.와 4600 ± 60 B.P.의 연대값을 보이며, 2호 집자는 4625 ± 30 B.P.와 4660 ± 60 B.P.으로 측정되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기존의 지경리 유적과 송전리 유적 내에서의 단계구분에 있어 뚜렷한 연대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통한 중부동해안지역의 중기 유적 내에서의 단계구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구분문계와 구연부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가 공존하고 있어 일부 빗살무늬토기의 존재 유무 혹은 출토빈도를 통한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과학적 분석이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⁶⁾

6) 초당동 유적에서 구분문계와 구연부 집선문계 토기가 시기적인 선후관계가 아닌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초당동 신석기인들이 구분문계의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와 남부지역의 구연부 집선문계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동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며, 이를 정보에 대한 인지는 시기차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VII. 맷음말

초당동 신석기유적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의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초당동 신석기유적은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의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령 초당동 신석기마을의 구조가 중기 이후, 동일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해 갔는지를 분석하거나,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생계경제 혹은 입지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에서 안타까운 점은 고고학 발굴조사에서 선사시대 마을 유적의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조차도 매우 드물어 초당동 유적을 이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점이다. 추후 초당동 신석기유적에 대한 다양한 자연과학분석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의 연구가 양양 지경리 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통한 중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영향관계 혹은 편년에만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초당동 신석기유적의 조사 성과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본고는 필자의 2022년 강릉 초당동유적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강릉 초당동유적 발굴성과와 연구과제」 중 「초당동 유적을 통해 본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양상」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투고일 2022. 11. 18 | 심사완료일 2023. 1. 20 | 게재확정일 2023. 1. 26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

- 고동순, 2006,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폐총전시관.
- 공승은, 2020,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토기 기종조성의 변화」,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진, 2007,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 『강원고고학보』10, 강원고고학회.
- _____. 2010, 「한국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 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0,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기 벽살무늬토기의 편년과 전개양상」, 『중앙고고연구』31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_____. 2022, 「초당동 유적을 통해 본 중부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 양상」, 『강릉 초당동유적 발굴성과 와 연구과제』강릉 초당동유적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의 지질다양성-강원도편』.
- _____. 2012,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신석기시대편』.
- _____. 2015, 『한국신석기시대 고고식물 암흔분석보고서』.
- 국토지리정보원, 2015, 『한국지리지 강원도』.
- 권혁재, 1999, 『한국지리-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 김진수, 2006, 「신석기시대 어로민의 생계유형」,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동삼동폐총전시관.
- 동삼동폐총전시관, 2004,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 _____. 2009,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 배성혁, 2007, 「신석기시대의 토기요 연구」, 『한국고고학보』62, 한국고고학회.
- 변사성 · 안영준, 1986, 「강상리유적의 질그릇갓춤새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86-2, 사회과학출판사.
- 소상영, 2019a, 「고성 문암리 유적 경작유구의 재검토」, 『한국신석기연구』38호, 한국신석기학회.
- _____. 2019b, 「한국 신석기시대 기후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 『기후의 고고학』,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송은숙, 2002, 『한국 벽살무늬토기 문화의 확산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 「중부 동해안의 전기 신석기문화와 연어」, 『한국신석기연구』11호, 한국신석기학회.
- 신숙정, 1995, 「강원도의 신석기문화에 대한 소고」, 『고고학상으로 본 강원도』,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윤정국, 2016, 「한반도 중동부지역 신석기시대 생계유형의 검토」, 『한국신석기연구』31호, 한국신석기학회.
- 이동주, 2001, 「중동부 해안지역 벽살문화토기문화의 성격」, 『한국신석기연구』창간호, 한국신석기학회.
- 이수진, 2010, 「강원도 동해안의 신석기문화」,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재, 2009, 「강원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생업경제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상택, 2001, 「벽살무늬토기문화의 지역적 전개-중서부지역과 강원영동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신석기연구』창간호, 한국신석기학회.
- _____. 2004, 「강원지역 벽살무늬토기 문화의 전개과정」, 『강원지역의 신석기문화』, 강원고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_____. 2006, 『한국 중서부지역 벽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초당동 유적군과 강원 영동지역 신석기문화」, 『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임수진, 2013,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중기 토기에 대한 검토」,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순 · 강소희 · 신이슬 · 서민석 · 이경아, 2015, 「중부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식물자원 이용 연구」, 『한국신석기연구』30호, 한국신석기학회.
- 조은하, 2014, 「강원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농경 수용과 생계양식의 변화」,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1,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서경문화사.
- _____. 2012,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서경문화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4,『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진인진.
- _____, 2016,『신석기시대 석기론』, 진인진.
- 지현병, 2003,『강원지방의 선사시대 주거구조에 대한 고찰』,『강원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0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최득준, 2016,『동해안지역 중기 연속침엽문토기에 대한 검토』,『한국신석기연구』32, 한국신석기학회.
- 최종혁, 2001,『신석기시대 동해안지방의 토기문화에 대한 연구』,『문물연구』제5호, 동아문화재단.
- 최종휴, 2019,『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촉의 형식 분포와 변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인수, 2006,『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창균·구자진·김근완, 2014,『대천리 신석기유적 탄화곡물의 연대와 그 의미』,『한국신석기연구』28, 한국 신석기학회.
- 홍은경, 2005,『신석기시대 야외노거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有光教一, 1938,『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遺物』,『考古學雜誌』28-11.
- 田中聰一, 2001,『韓國中南部地方新石器時代土器文化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고서 -

- 강릉대학교박물관, 1991,『강원영동지역의 선사문화연구』.
- _____, 1992,『강원 영동지역의 선사문화연구』.
- _____, 1994,『강릉교동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 _____, 1995,『강릉의 역사와 문화유적』.
- _____, 2002,『양양 지경리 주거지』.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1,『강릉 초당동 유적 I』.
- _____, 2022,『강릉 초당동 238-1번지와 2필지 유적』,『202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주문진 공설운동장 건립부지유적』,『강릉지역 문화유적발굴(시굴)조사 보고』.
- _____, 2004,『강릉 강문동 철기·신라시대 집자리』.
- _____, 2005,『강릉 초당동 유적 I』.
- _____, 2006a,『강릉 초당동 신석기유적』.
- _____, 2006b,『강릉 초당동 유적 II』.
- _____, 2006c,『강릉 하시동 공군관사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 _____, 2007a,『강릉 방동리 유적』.
- _____, 2007b,『강릉 방동리 집자리』.
- _____, 2007c,『강릉 초당동 유적 III』.
- _____, 2012,『고성 대진리 유적』.
-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강릉 초당동 394-3번지 유적』,『2019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양양 가평리』.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a,『강릉 지변동 유적』.
- _____, 2007b,『강릉 초당동 유적 II』.
- _____, 2008,『양양 송천리유적』.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강릉 금진리 유적 II』.
- _____, 2009,『고성 청통리 유적』.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평창 용항리 유적』.
- _____, 2011, 『강릉 안현동 유적』.
- _____, 2020, 『강릉 초당동 유적 IX』.
- 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강릉 안인리 유적』.
- 한강문화재연구원, 2008, 『서울 궁동유적, 강릉 방동리 가둔지유적』.
- 한국문화재재단, 2015, 『2013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
- _____, 2019, 『강릉 방동리 63-20번지 유적』,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Review of the middle Neolithic age of the central east coast area seen through Chodang-dong Site

Koo, Ja-Jin(Manager,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The remains of the middle Neolithic age in the central east coast area had no clear results other than those of Jigyeong-ri, Yangyang. With the excavation of Chodang-dong site, a detailed review of the middle Neolithic age became possible. In Chodang-dong Neolithic site, comb-patterned pottery, stone tools, dwellings, and Open-Air Hearths were investigated.

The study of the Neolithic age in the central east coast area focused on the chronology and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iddle Age culture through comb-patterned pottery. The middle Neolithic age of the central east coast a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comb-patterned pottery in the Midwest area. Later, it was thought that comb-patterned pottery, which had the traditional of the southern area was excavated.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relics excavated from the Neolithic site in Chodang-dong. As a result, the lip pattern of the comb-patterned pottery is divided into a single thread and a zip line pattern. Most of the Neolithic site in Chodang-dong are the latter. Some of the site of Gangneung are the former. Comb-patterned pottery engraved with short horizontal and slanted gates have been excavated from the remains of Open-Air Hearths. The Open-Air Hearths of Chodangdong site was intensively used in the late Neolithic age rather than the middle.

Chodang-dong Neolithic site was a large village with many dwellings and Open-Air Hearths in the middle of the Neolithic Age. In the middle Neolithic age, Chodang-dong site were the residential area south of Gyeongpo Lake. Afterwards, in the late Neolithic age, an Open-Air Hearths was installed throughout the first sand dune area. However, he lived in Chodang-dong site and did not use Open-Air Hearths.

Key words : Neolithic Age, Central east coast area, Chodang-dong Site, Comb-pattern pottery, Open-Air Hearths